

식민지 시기 김해강의 시에 드러나는 공간 표상과 근대적 감각

이 지 영*

차 례

- | | |
|---------------------|---------------------------|
| 1. 서론 | 3. 훼손된 요람 ‘고향’, 그리고 ‘북방’이 |
| 2. 근대 도시 공간과 파국의 감각 | 라는 바깥 |
|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김해강의 시에 드러나는 공간 표상을 통해 식민지 현실에 대응하는 시적 감각을 추출한다. 김해강은 시대적 위기를 관철할 새로운 인식과 문학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식민권력에 의해 굴절된 내면을 근대적 감각으로 공간화 한다. 급변하는 도시의 메커니즘은 화려한 문물 이면에 이식된 근대의 모순과 기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파편화된 사물과 현상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고 공감각적인 공간으로 재편되면서 권태와 환락의 식민도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파국의 감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왜곡된 근대화가 고향에 투영되면서 또 다른 상실감과 박탈감을 부여하는 가운데, 동경과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시간강사

고향을 추구하는 향수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민족적 정체성과 원초적 질서를 지향함으로써 근대의 균열을 봉합하고자 하지만, 훼손된 요람인 고향은 복원 불가능한 곳이자 어디에도 거처할 수 없다는 자의식의 소산이다. 탈향의 감각은 북방으로 이어지면서 외지인으로서의 고립감과 향수를 증폭하는 한편, 민족적 비극이 자행되는 현실을 포착하며 식민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북방이라는 바깥은 국경의식과 더불어 탈-중심화를 통해 제국의 환상과 균열을 폭로하고 굴절된 내면을 환기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처럼 근대도시-고향-북방의 공간적 특질은 근대와 식민화가 상호착종하는 양상을 첨예하게 보여주며 그에 부합하는 정서와 시대정신을 추출하고자 한 비평적 태도를 드러낸다. 새로운 감각의 공간적 조직을 통해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주체적인 생활을 추구한 문학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근대 도시, 고향, 북방, 비평적 감각, 식민지적 감각

1. 서론

식민지 시기 김해강의 시 세계¹⁾는 식민지 현실의 비극성이 구조를 이

1) 김해강의 시 세계에 대한 시기 구분 문제는 초기와 중기를 가르는 기준을 두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전정구에 따르면 초기 시를 카프 문학관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둔 1925년부터 1935년까지로 설정할 경우, 이러한 경향이 이후에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해방 이전까지를 초기 시로 설정하여 변화 양상을 아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정구, 『김해강의 초기시 연구 : 해방 이전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을 근거로 김해강의 초기 시를 분석 대상으로 하되, 식민지적 시적 대응으로서 시대를 비평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추출하고자 식민지 시기로 명명한다.

루면서 카프 문학에 동조하는 ‘카프계급동반자파’²⁾로 분류되는 한편, 그가 ‘근대 낭만주의의 진보적인 후예’이며 ‘실증적·과학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관념적인 동경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향’³⁾으로 규정된다. 이는 김해강이 『소년』과 『학지광』을 접하며 신문학을 습득하고 카프의 문학적 사유에 조용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부터 시에의 郷心”을 키워가며 “모든 자연은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신성한 생활”⁴⁾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로부터 발현된다. 초기 시 세계가 현실인식 추구하고 서정적 경향이 혼재하는 것은 이 시기 급변하는 정세와 문학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학정신과 창작 방식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이었다. 생활 경험을 근간으로 현실 비판의식을 추출하는 한편, 서정적이고 정제된 시어와 정서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시대정신과 정서에 부합할 새 문학의 방향성을 가늠해갔다. 식민권력이 팽배해가는 가운데 현실인식과 문단/문학적 대응이 불가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시대적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활로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㉔ 文學者로서 文壇에 對한 自覺과 現實 生活에 對한 正確한 認識 또는 透徹한 意識을 問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初學者에게 讀書 方法을 勸誘한다 하면서 이런 말을 쓰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생각되는 바로 적어도 나는 萎靡不振하는 現文壇에 잇서 在來의 逃避 文學을 驅逐하는 一方, 本質的으로 明日의 新文學을 建設하고 進하여는 新社會를 創造할만한 한 個의 큰 社會 勢力의 存在로써 君臨할 來頭 文壇의 權威있는 大家를 嚮望하여 마지 않는 熱意에서 出發되기 때문이다.⁵⁾

2) 이해문, 「중견시인론」, 『시인춘추』, 1938.1.

3) 임 화,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 조선의 시문학」, 『조선중앙일보』, 1934, 『임화문학예술전집』, 355-356쪽.

4) 김해강, 「나의 文學 60年」, 『표현』 11, 1986, 최명표 편, 『김해강 전집』, 국학자료원, 2015, 774쪽. 이후 출처 표기는 『전집』과 쪽수로 표기한다.

5) 김해강, 「자각과 의식 문제」, 『대중공론』, 1930, 『전집』, 712쪽.

㉑ 우리는 恒常 大衆(下層 階級의—)의 感情과 思想과 意志를 基調로 生活의 組織力을 強化코저 時代 意識에 가장 適合한 意識的인 創作 活動에 全力을 傾注할 것⁶⁾

‘조선문학이 그간 계급적 분화과정을 반영해오다가 세계적 규모의 반동기에 빠져’⁷⁾있고, ‘기성문단이 통속과 파시즘적 경향으로 전향하는 한편 신흥문단에 대한 보이콧’⁸⁾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김해강은 당면한 위기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새로운 문학정신을 강구한다. 기성 문단에 성행한 ‘도피문학’과 ‘환상문학’이 식민지 현실의 구체적인 생활상과 정서를 등한시하면서 시대정신을 추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는 재래의 작법이나 세계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자각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할 새로운 시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즉 김해강에게 신문학은 ㉒ 문단의 반성적 성찰을 통한 쇄신과 엄정한 생활 인식이 반영되고 ㉑ 하층민의 정서를 구현하며 시대의식에 적합한 문학 양식인 셈이다. 이러한 문학태도는 계급적 구호나 사상을 추종하기보다 생활의 현장성을 생동하게 형상화하여 조선 현실의 문제와 정서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는 문학윤리로서 작동한다.

김해강에게 새로운 문학의 조건으로서 시대의 특수성을 기민하게 포착한다는 것은 곧 창작 주체로서 문학과 생활이 등치함을 의미했다. 시쓰기로서 주체적인 생활을 운영하고자 했던 김해강은 ‘독자적인 꿈의 세계’와 ‘가혹한 현실’의 충돌 속에서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할 생활의 파탄’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피식민자의 문학적 실천에 대한 윤리적 고뇌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철한 현실 인식을 추구하면서도, 그 한계를 내면화한 낭만적 정서에 부합하는 문학적 모색으로 발현

6) 김해강, 「대중의 감정을 기조로」, 『조선일보』, 1934, 『전집』, 716쪽.

7) 김기진, 「조선문학의 현단계」, 『신동아』 39, 1935.

8) 백 철, 「1933년도 조선문단의 전망」, 『동광』 40, 1933.

9) 김해강, 「창작 일기」, 『조선문학』, 1939, 『전집』, 726쪽.

된다. 근대의 불구성과 분열을 상쇄하고 통합할 심미적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상과의 교감과 조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해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동향이었던 김창술과 1930년에 시집 『기관차』를 출판하려다 조선 총독부의 불허로 좌절되면서 일제의 폭력성을 절감하고, 이후 『시건설』을 통해 순수시를 지향한 맥락과도 잇닿아있다.¹⁰⁾ 불가항력의 정세 속에서 내면세계를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가능성을 짚어나간 것이다.

김해강의 식민지 시기 시 세계에서 감지되는 현실인식과 서정성은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견지하면서 그에 충실한 정서를 추출한 시적 감각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문단의 사상적 동향에 함몰되거나 지난 문학관을 답습하지 않고 혼탁한 시대상을 탐구하는 새로운 ‘시대의식’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비평적 태도는 반-근대로서 억압과 수탈로부터 해방하는 근대적 감각을 고안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위기의식을 포착하는 새 감각의 조직을 통해 진정한 근대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정립하고 자기 생활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식민지 시기 김해강의 시 세계를 통해 근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시대정신으로서의 시적 대응과 사유를 추출한 공간 표상에 주목한다. 근대인의 내면과 정서를 감각적인 공간으로 재편함으로써 시대의 변곡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에 길항하는 시 쓰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간 관련 연구로는 도시 공간에 드러나는 식민지적 비애와 절망 및 비판 의식을 비롯해 이 시기 문학세계를 고찰한 시각들

10) 『시건설』에는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는데, 북방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전통적이고 서정적인 작품, 생명과 작품들을 아우른다.(나민에, 『1930년대 후반의 최북단 동인지 『시건설』 연구 : 신진 시인들의 기획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0,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08쪽.) 김해강은 친분이 두텁던 김림인과 1936년 『시건설』을 창간해 편집과 발간에 힘썼는데, 식민통치에 따른 제한적인 창작 여건 속에서 잡지의 성격과 방향성을 고려할 때 초기 시에서 발견되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작품들은 내면화 된 현실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출되었다.¹¹⁾ 기존의 논의들은 공간 문제를 도시에 한정해 주제의식을 의미화 했는데, 이는 초기 시의 식민지적 특수성과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협소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김해강이 공간적 형상화를 통해 근대와 식민지 현실의 결절점을 폭로한다고 할 때, 도시뿐만 아니라 고향 및 북방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를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근대도시—고향—북방의 공간적 정체성과 특질이 감각과 결부되어 시대정신을 점유하는 바, 근대 양식과 규율에 대응하는 문학적 실천으로서 식민지 시기 시 세계의 의미구조를 심화하고자 한다.

2. 근대 도시 공간과 파국의 감각

일제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식민지 도시 확장과 변화는 새로운 경험과 감각의 장이자 제국의 지배 논리로 점철된 공간으로 부상했다. 경성을 중심으로 ‘도심지의 기능적 분화, 공간적 팽창으로 인한 도시문제, 빈부 양극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대도시화’¹²⁾가 전개되면서 급격한 근대적 공간 구획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시의 근대성은 이전 생활양식과 충돌하는 이식된 것으로서 스펙터클한 속도의 문명이었다. 식민도시는 이식된 새로운 규범 및 양식을 통해 식민지 인구와 토착 인구를 통합 분류하고 훈육·통제·개조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새로운 소비자들의 실험공간이자 저항문화의 원천이고 새 주체성의 표상이 된 것이다.¹³⁾

11) 초기 시 세계에서 도시 공간을 주축으로 제출된 논의로는 이운룡, 『도시공간과 김해강의 저항시』, 『한남어문학』 15, 한남어문학회, 1989. ; 최명표, 『김해강의 도시에 함의된 공간 표지의 식민지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3, 2003.를 들 수 있다.

12) 김백영,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 『사회와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83-86쪽.

13) 앤소니 킹, 이무용 역, 『도시문화와 세계체제—문화, 공간, 역사로 읽는 세계도

이는 문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근대화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사유하면서 여기에 은폐된 모순과 분열에 대응하는 방식을 강구하게 했다. 문명의 발달 기저에 식민화와 근대화가 병리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 새로 재편된 근대적 질서가 선사하는 진보적 전망 속에서 식민지적 상실과 박탈감을 절감해야 했던 것이다. 이들이 도시 문명의 근대성을 포착하는 방식은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양 형클어진채/ 사념 병어리되어 입을 다물”(김광균, 『와사등』)거나, “씩, 씹, 뿔아올나간 高層建物—/ 公式的으로 羅列해나가는 都市의 美觀”(오장환, 『首府』)을 포착하며 일회적이고 파편화된 공간으로서 환멸과 비애를 새롭게 내면화했다. 김해강은 고향인 전주를 떠나 “이 現代의 制度가 나흔 얼마나 矛盾 畸形의 現像”¹⁴⁾인가를 경험하며 근대 도시의 변화와 속성을 세기말적인 감각으로 공간화하며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생활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이로써 시대정신을 확보하는 것이 곧 시 쓰기로 직결되는 문제였던 그에게 도시로의 이동은 곧 근대현실의 온상을 확인하는 행보이자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

기름진 살내를풍기며 못숫개 곱고 분칠한 암강아지새를 실코
一九二九年代의 自動車의 行列은
뒤쫓뒤쫓 기우러가는 焦燥한舞臺面을 暴馳한다.
살가티 살가티 萬丈의紅塵을 氣勢조케닐으키며

地上에 노힌 怪常한羅列 -

시체제』, 시각과언어, 1999, 27-32쪽.

- 14) 김해강은 산문 『正初 漫筆』(1930)에서 정초의 시가지 풍경을 묘사하며 방탕과 향락에 빠져 “肉體的으로 驅逐을 當하고 또 精神的으로 墮落이 된” 자들을 목도하는데, 이는 산촌 빈민의 생명력 충만한 모성과 대비되면서 도시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캐썬을 聯想케하는 巨大한썰딩'썰딩 - 흔들리는 썰딩 - 콩크리트로 굿
게 다저노흔밋바닥 - 써저가는 밋바닥!
刻刻으로 角度의差가 벌어가는 썰딩의羅列은 가가스로 發惡을한다.

地上에 흐르는 후더분한 薰氣에
이代의꽃子孫 - 철엽는 머슴애 게집아이들의 날리는 넥타이썬 펄럭어
리는 스카트스자락 -
여물도덜한 살새들이 연붉은享樂에 휘감겨 病든林檎처럼 妖邪로운
紅燠에 비릿한靑春을 무덤으로 쓰으는구나!¹⁵⁾

㉞

3.

享樂에 날뛰는무리, 봄스그늘에 보금자리베풀어질새 - / 해맑은날세에
도 어둠과고달픔이 冷氣에 휘둘러흐르는/ 다닥다닥 原始人의草蓆가튼 감
감한土窟속엔/ 斷末魔의使者처럼 千萬겹겹겹으로 겨을이 물려잠겼거니 -

病든몸둥이 거적에싸혀 가랑가랑 숨을모으고/ 누르딩딩한 어린얼굴
들 뱃쪼이는돌무덤미테 쪼슬쪼여 꾸벅꾸벅 조으는구나/ 산송장들 늘어져
잡바진 아하 慘酷한 제물墓地로다/ 죽음을 끌어당기는 喘息만이 각가스
로拍子를急燥하는구나

- 오오 咀呪할봄이로다 時節이로다 젊은놈의허파만 부서지도다!¹⁶⁾

화자가 포착한 근대 조선은 “약한 자의 기름을 짜내고 고기를 할른 저
-무서운 허스바닥을/일흠몰을 보석들로 장식하여 노흔”(『도시의 자랑』)
곳이자 “주린 맹수처럼 씹은거리는 알콜에 저즌 몸스둥이들”(『白滅하는
肉의 洪水時代』)은 “부시는 色彩와 어지러운音響에 사로잡혀/ 輝煌한저
자로 세뭇처 쓸리는/ (촉뺏인 활살에 겨냥을 일흔)/ 비린 肉塊들”(『그대
들억개에花環을걸치어주노니』)이 넘실대는 곳이다. “거대한 괴물가튼 식

15) 김해강, 『暴馳時代』, 『조선지광』, 1929, 『전집』, 216쪽.

16) 김해강, 『咀呪할봄이로다』, 『동아일보』, 1929, 『전집』, 204쪽.

컴한 기계 압해 숨을 헐떡이며”(『歸路』) “오늘의 모순스된 궤도우에 세
기의 엘레지 - 를 놓히볼르는 大都의 심포니 - 여!”(『咀呪할 봄이로다』),
“살찐 가로수의 가지가지엔 끝물을 환멸의 애수가 떠흐으”(『더위먹은
도회의 밤아』)는 문명의 기형성이 적나라하게 전시되고 있었다.¹⁷⁾ 근대
와 식민화가 상호 착종하며 분열된 공간에서 대상은 온전한 유기체로
존립할 수 없는, 부속물로서 배치될 뿐이다. 이 ‘괴상한 나열’은 ‘각도의
차’를 통해 드러나는데, 질주하는 자동차에서 시시각각 보이는 사물들은
일그러지고 불연속적인 장면으로 연출됨에 따라 파편적인 구도를 형성
하면서 이식된 근대화의 파국을 표상한다. 즉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도
시는 찬란한 문명의 장이 아니라 “뒤쫓뒤쫓 기우러가는 焦燥한 舞臺面”
이었으며, 흔들리는 “巨大한셀링”들과 “꺼져가는 밋바닥!”이 교차하는
착란의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속성은 죽음과 결부되며 ‘묘지’로 치환되는데, ㉠ “여물
도덜한 살썩들”, “비릿한 靑春”이 무덤으로 모여들고 ㉡ “斷末魔의使者”
로 비유되는 “慘酷한 제물墓地”인 것이다. 근대 체계로부터 소외되고 배
제된 채, 그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한 존재에게 이곳은 곧 죽음의 터전이
기 때문이다. 화자는 병든 산송장들이 ‘누르땡땡’한 얼굴로 ‘가랑가랑’ 숨
만 부지하며 권태와 환락에 범벅된 광경을 적나라하게 표상한다. “쌍밋
층에선 해골들이 어즈러히춤추는것을/ 이거리는 한개의큰상여의 行列”
(『街上咏嘆』(二))로 인식하는가 하면, 근대 메커니즘과 사회구조적 모순에
희생된 존재는 “슬른 독안이속가튼 후덕후덕한 機械人間”에서 “骨髓
에까지 丙이들어찬 半송장된 몸”(『누나의臨終』)으로 형상화 되며 그로

17) 근대도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감각적 형상화는 『屠獸場』, 『조선의거리』, 『나
빅의亂舞』, 『都市의겨울달』, 『都市의자랑』, 『都市의斷末魔』, 『大地巡禮』, 『밤入
都市의 交響樂』, 『都市의녀름날』, 『街上咏嘆』(一), 『街上咏嘆』(二), 『咀呪할봄이로다』,
『暴馳時代』, 『白滅하는肉의洪水時代』, 『더위먹은都會의밤아』, 『그대들억개에花
環을걸치어주노니』, 『電燈불꺼진 鋪道우에는』에서 발견되며, 근대 자본주의의
비극성은 『職工의노래』, 『惡魔』, 『봄밤의情調』, 『아아누나의얼굴다시불수업쓸까』,
『누나의臨終』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테스크한 도시 공간의 단면을 포착한다. 살아 움직이듯 ‘뒤쫓뒤쫓 기우러가는 초조한 무대면’에서 근대문물은 팽창해가고, 이로부터 할당된 새로운 경험양식은 인간성의 상실과 침탈로 인한 존재론적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 것이다. 이는 공허한 과장이나 장식이 아니라 근대 도시의 식민지적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이를 증폭함으로써 도시 공간에 대한 감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 바다는 굼틀거린다./ 시킴한 배암처럼, 흰 배새기를 감추고 굼틀거린다./ - 바다는 굼틀거린다./ 수천마리 주린 이리새처럼 악아리를 벌이고 웅얼거린다./ - 물스결은 내닥친다./ 鞍裝벗은奔馬처럼 우루루 우루루 네굽을 치며 성난물스결은 내닥친다./ 확! 날리는 飛沫. 쏘 - 퍼지는 버름.

北風의猛威에 한올도 빗장을 질은듯/ 검은 구름스장이 산덤이처럼 물러갈썬 - / 다못 서스역에 쫓겨난王子처럼, 한낫 찬별이 썰고잇는/ 悽愴한 海港의밤은 무거운 恐怖를 싸안스고 겁허만 간다./ - 날리는 屋上 看板의悲鳴./ - 地上에 소친 電信柱의몸부림/ - 느러선 街路樹의戰慄.

오오 두려운 豫感を 붓들고 썰고잇는 海港의 이밤! / 그러나 웃독한 大都의怪物 - / 썰딩에선, 무덤스속 燐火가튼 電光이 흘러나온다./ 毒한 술과 어엽분 게집의 強烈한香氣에 醉하야/ 컵을 놓히 치여드는 파리한 팔썩들, 그리고 맛 부딪는 肉塊들 - / 綠色 커 - 텐스자락에 설여, 대구를 굴러떨어지는 자긋빋 우슴 - / 心臟이 깨지도록 지친, 骸骨들의興奮은 狂爛에 저저잇지안느냐?¹⁸⁾

급변하는 도시의 속성은 공감각적인 공간으로 추출되는데,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한 대상의 특질을 파편화하여 이질적으로 배치한다. 밤 항구의 바다와 물결은 “시킴한 배암”, “수천마리 주린 이리새”로 비유되며 공포를 환기하는 한편 “鞍裝벗은 奔馬”처럼 내달리는 역동적인 움직임

18) 김해강, 『北風이 怒號할썬』, 『비판』, 1932, 『전집』, 283쪽.

을 의태어(‘확! 날리는 비말’)와 의성어(‘우르르 우르르 네 굽을 치며’, ‘췌 - 퍼지는 버름’)로 형상화함으로써 대상을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는 “눈을부시는 어지러운 色彩. 귀를싸리는 시끄러운音響.” 속에서 “우루루몰렸다 우루루싸러지는/ 다리·다리 - 다리의물스결. 횃청횃청횃청거리는 다리의물스결/ 와라락 달겨들다 와라락 물너스는/ 허리·허리 - 머리의멜로디. 날신날신 날신거리는 허리의멜로디.”(『白滅하는 肉의 洪水時代』)와 같이 단편적인 감각 자료들을 추출해 도시의 속성과 현상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감각들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인상을 환기하는데, ‘옥상 간판의 비명’이 날리고 ‘지상에 꽃힌 전신주’가 몸부림을 치며 ‘늘어선 가로수가 전율’을 일으키는 공감각적 정경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의 의미구조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옥상’과 ‘지상’으로 구체되는 공간적 인식을 통해 타락한 근대의 표상으로서 항구도시를 전경화 한다. 식민지 항구도시는 제도적·문화적 변화의 거점으로 식민권력의 통제와 확장이 진행되면서, 근대 규율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식민성을 띠는 중층적인 경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잡종적인 현상들로 재편된 공간은 도시화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이 모여든 환락가로 변모해갔으며, ‘도시의 괴물’인 빌딩으로 환유되는 퇴폐적인 단면들은 단순히 정경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공간에 기입되지 못하는 피식민자의 정서를 환기한다. “綠色 커 - 텐스자락”에 “굴러떨어지는 자줏빛 우슴 - ”은 청각(웃음)을 색채(자줏빛)로 시각화하고 이를 녹색 커튼에 대비시킴으로써 근대 도시의 파국과 균열을 새로운 감각으로 폭로하는 시적 태도라 할 수 있다.

3. 훼손된 요람 ‘고향’, 그리고 ‘북방’이라는 바깥

식민지 문인들에게 고향이라는 표상은 근대의 산물로서 “검열된 국토

의 대리보충물로서 향토와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향토의 이중성¹⁹⁾을 띠면서 식민지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제국 논리를 내면화하는 양상으로 대응했다. 김해강에게 고향은 근원적 거처로 기능할 동경과 복원의 대상이자 어디에도 귀속될 수 없다는 방랑적 자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다. 도시에서 고향으로의 이동은 근대의 폭력성과 균열에 대한 대항이자 그 불가능성이라는 양가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원형의 기억이 보존된 ‘요람’으로서 고향을 좇지만 이내 훼손되고 불구된 공간이라는 실재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도시와는 또 다른 비애와 환멸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다. 동경과 이상적 공간으로서 고향을 지향하는 것과 식민지적 비극상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해나간다. 이 두 향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민족적 원형 추구와 그 불가능성이 상호작용하면서 공간적 특수성을 확보한다. 향수의 감각으로 재건된 고향은, 훼손된 역사적 현장을 견지하는 데서 촉발된 내면 공간인 것이다.

1.

北은 江景入별, 西南은 萬頃入별/ 南으로南으로 길게 썬 철쭉을 넘
어넘어/ 드문드문 푸른 베이삭에 파무친 마을을 넘어 쏘넘어—/ 먼南쪽
하늘에 발도둑 하고 둘러싼 山들/ 오오 그西편에 멀썩이 썰어져 우썩썩
은 母岳山.

힘있게 썬 네 기술에서 내몸이 낮고/ 네 어깨를 넘어 불어오는 蘆
嶺의 세찬바람을 마시며 내몸은 자랴나니—/ 쏙 피고 새 울든 네 품은
오죽 하나인 나의보금자리였고/ 靑空을 머리에 이고, 네 활개밧테 고요
히 퍼진 별판은 오죽 하나인 나의 노리터였드니라.

하얀살쥔 네 그늘밧테서 울며 우스며, 소리치며 발버둥치며 사랑하는

19)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11쪽.

벗들과 갓치 수월수월 커나는 나/ 버들 썩어 피리 내여 불며, 絶壁을 기
어올라 진달래꽃 따먹든 아츰/ 모래入江 맑은물에 뛰어들어 튼명툼명
물장구 치며/ 불뼉 쏘다지는 세내入벌을 알몸으로 내뺏든한낫/ 서늘바
람에 옷깃을 날리며, 쏘대든 몸이 꽃穀食 香氣에 醉하여 수수入대 춤추
는 밧두던에 번드시 누어 하늘을 숨쉬는 저녁.

쌩쌩 언 적은손을 호호 불며/ 토끼를 쫓다가 산入길 눈속을 해매이
든 달入밤/ 오오 그적에 어린목청을 노파 불으든 나의노래를(별서 스무
해 압일이어든)/ 너는 잊지안코 記憶해 주겠니?²⁰⁾

화자는 모악산의 광활한 정경과 유년기 기억을 겹쳐놓으며 자유분방
한 경험을 재생한다. 청공을 머리에 이고 활개 밑에 고요히 퍼진 별판에
서 뛰놀며 하늘을 숨 쉬던 기억은 자연의 법칙과 순리에 따른 삶의 현장
으로 묘사된다. 이는 김해강의 고향인 전주에서 ‘건훤의 옛 성터’와 그
정경을 소환하며 역사적 터전으로서 유구한 옛 고향의 기상과 생동하는
정취를 복원하고자 한데서도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²¹⁾ “거기엔 建國
將士의 豪放한 옛꿈이 묻쳐있고” “마음껏 노래 부르고 뛰놀던 빛나는地
域”(「오오 나의옛搖籃이여!」)으로, 유년의 생명력이 충만한 원초적 공간
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생활 터전으로서 얼과 정서가 투영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성된 고향은 도시의 식민성으로부터 도피하여 자족

20) 김해강, 「오오 나의母岳山아」, 『조선문단』, 1935, 『전집』, 339-340쪽.

21) “全州府內에서 남으로 三馬場쯤 발을 옮겨놓으면 건훤의 옛 성터 南固山 西南麓—高麗末 鄭圃隱이 南征의 師를 거느린 李侍中을 따라왔다가 悵然히 望京의 시를 읊었다는 南將臺 바로 밑, 나직한 언덕을 비스듬히 넘어서면 흑석골이란 적은 마을로 들어가는 동구에 좁으장하게 들어앉인 아담한 田野가 있다. 그 좌우로는 峻峯, 高德山 餘脈이 황소등줄기같이 세차게 북으로 뻗어있으며, 높고 낮은 丘陵이 구불통구불통 흥취있게 누비쳐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森森한 老樹사이로 멀죽어니 뚝 떨어진 全州府中을 바라고 있는데 한層, 雲霄 밖으로 불으면 곧 대답이나 할 뜨시 소스랴게 우뚝 소스 豊南의 門樓가 有情한 樣 발돋움하여 내여다보고 있다. 오오 그곳! 그곳이야말로 내 어린 시절이 빛나고 있는 옛 搖籃.” 김해강, 「낡은 詩帖에서」, 『조광』, 1941, 『전집』, 729쪽.

하기 위한 곳이 아닌, “더러운 靈魂의 寢衣를 버서버리고/ 무거운 肉體의 塵埃를 떨어버”릴 “새로운 光燭이 타고 잇는 나의 瞳子”로 “멀리 불스길 속에 수레를 몰아 굴러오는 새날을” “내 故鄉!”(『마음의 香火』)에서 찾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고향에서의 경험적 기억을 재조직한 공간에서 대상과 자유롭게 교감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근대의 위기를 전복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고향이 거느리고 있는 근원성은 도시의 식민지적 특성에 대치되며 새로운 생활을 전개할 공간적 특질이라 할 수 있다.

김해강에게 생활은 발전이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摘發하여 나의 생활 방향을 혁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삶의 면면으로 들어가 “피지배자의 비애”와 “가난을 파고 나아가는 적은 생활 戰士”²²⁾를 발견하는 동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향은 도시로부터 분열된 내면을 회복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거점으로 작동한다. “주린 살빼에서 피땀을 뿜아 가을의香氣 일귀농”(『黃波萬頃에 익어가는 가을』)은 근대의 민낯과 “흙을흠여나물을캐던/ 그러케도조튼넓은들”(『넛들』), “내어린손목에 五色실 감아주시며 머리를빚겨주시던 어머니생각”(『端陽叙懷』)의 원체험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의미화 되는 것이다.

二. 歸鄉

1.

구비처 흐르는 푸른長江!

높게 개인 맑은 하늘!/ 그는 가슴을 헤치고 江나루 모래등천에 뛰어 올라/ 터지는듯 떨리는 목소리로 웨쳐 불렀다.

22) 김해강, 『正初 漫筆』, 1930, 『전집』, 704-708쪽.

- 『오오 나의옛搖籃이여! 노래의聖地여!/ 太陽을 물고 종다리 노래를
뿌리는 빛나는地域이여!』

2.

그러나 떠난지 십년! 搖籃의옛터는/ 다시 돌아온 젊은아들을 반기어
맞아주지는 못하였다./ 물에 채어, 등쌀에 밀려 흘러가버린 마을!/ 미영
밭 동산을 두동강에 끊어내고 길게 뻗힌 新作路!

- 낮 익은 물레방아는 그자취 어느곳에 파무쳤는고!/ 어울리지도 않
는 포푸라숲이 뽀뽀이 느러서있을뿐.

(중략)

三. 放浪

1.

돈는 해, 지는 달/ 長江을 건너, 國境을 넘어 - / 萬里長空엔 白雲만
떠돌뿐/ 끝없이 열린 아득한 별판.

- 그는 얼마나 허파가 꺼진 沈痛한가슴을 어루만지며/ 거칠은大氣에
불붙는情緒를 식혔든고.

2.

바람 찬 朔北의 밤!/ 쏘대느라 몸이 疲勞에 뒤감길때면/ 千斤같은 무
거운다리를 地殼에 뻗고/ 밤荒原에 번드시 누어 蒼空을 숨 쉬었나니 -

- 그리하야 밤이 새일때까지 千古의秘夢을 소리없이 쏘는/ 天上 星座
의 귀스속이야기를 엿듣는것이였다.

3.

白雪이 날리는 興安의峻嶺!/ 발스길에 채이는 渤海의 달!/ 萬樹長林에
푸른안개는 흩어지고,/ 서리찬 새벽하늘에 울고가는 기러기 소리!

- 曠漠한 萬里의荒原에 해는 돌고 지고 - / 바람 잔 뷔인 가슴에도 해
는 지고 돈다.²³⁾

그렇게 돌아온 고향은 더 이상 ‘노래의 성지’나 ‘태양을 물고 종다리 노래를 뿌리는 빛나는 지역’이 아닌, 근대화로 훼손된 공간이다. 식민지 도시의 권태와 환멸로부터 귀향했지만 이곳 역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화자는 이중의 박탈감을 느끼며 떠남과 돌아옴을 반복할 뿐이다. 옛 요람이 된 고향을 재구성하며 향유하고자 하지만, ‘동산을 두동강에 끊어내고 길게 뻗힌 신작로’와 ‘어울리지도 않는 포푸라 숲이 뽀뽀이 느러서있’는 곳에서 단절과 이질감을 확인하고 정착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마는 것이다. 어디로도 돌아갈 곳 없다는 자각은 떠돌이로 귀결되고 이는 북방(朔北)에 대한 지향성을 드러낸다. 국경을 넘어 끝도 없는 벌판을 떠돌다 당도한 이곳에서 화자는 ‘천근같은 무거운 다리를 지각에 뻗어’ ‘창공을 숨 쉬’고 ‘천고의 秘夢’을 엿들으며 시원적 체험이 가능한 대지적 공간에 이른다. ‘興安’의 높고 가파른 고개에 ‘발해의 달’이 발길에 채이고, 푸른 안개가 흩어지는 울창한 숲과 기러기 소리를 통해 고유한 공간성을 형성한다. 푸른색과 백색, 차가움, 차이고 흩어짐이 연계되면서 다양한 감각들이 조직되는 가운데 북방의 신비롭고 태곳적 면모를 추출하는 동시에, “曠漠한 萬里의荒原”로부터 방랑하는 처지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환기한다. 화자에게 북방은 도피적 동경의 공간이 아니라 존재론적 비극을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민족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북방은 민족의 역사적 시원이자 지정학적 지대로서 이민자들의 비극성이 쌓여있는 중층적인 공간으로 형상화 된다.²⁴⁾ 근대시에서 북방이라

23) 김해강, 『紅天夢』, 『조선문학』, 1937, 『전집』, 376-379쪽.

24) 이와 더불어 북방은 지방 문학(언어)으로서의 특수성이 투영된 곳이기도 하다. 김기림이 “이北쪽에서는 作家나 詩人의 作品의 特質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共通되지는 않아도 大體로는 좀 부툼부치가 텅텅하”(김기림, 『관북, 만주 출신 작가

는 영역은 관북·관서지방이나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을 비롯해 연해주 및 시베리아를 포괄하며 만주 또는 북간도라 지칭하기도 하는데,²⁵⁾ 역사적 영토로서 북방의 광활하고 유구한 풍속과 그에 대한 민족적 향수를 담고 있는 한편 일제의 식민 계획으로 인한 유랑민의 참담함으로 점철된 현장이기도 하다. 가령 이용악과 백석을 비롯한 문인들은 북방의 지역적 특색과 풍속을 추출하며 비극적인 서사나 고유한 민족적 표상을 환기함으로써 조선적 서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²⁶⁾ 북방은 민족적 삶의 거점이자 그리움의 정서로 구현된 고향이면서 동시에 유랑민에게는 침탈과 이방의 공간으로 기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해강에게 북방은 곧 식민지적 애환과 탈향 감각이 교차하는, 근대의 ‘바깥’이며 고향에 투영된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새로운 현실감각을 드러낸다.

고향이 그리워/ 잠도 못이루는 鴨江의 밤!

찬 달이/ 고요이窓살에 서리는데

靑銅 火爐에/ 타다 남은 한덩이 빠알간 솜서결이

머언 燈臺와 같이 외로운……

의 ‘향토문화’를 말하는 좌담회], 『삼천리』 12권 8호, 1940, 97쪽.)다거나, 이용악이 “關北 作家들의 作品의 特徵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참하지 못하다던지 纖細하지 못하다던지 하는” 것이 “關北 作家들의 弱點이 되기도 쉬울 것”(이용악, 『관북, 만주 출신 작가의 ‘향토문화’를 말하는 좌담회], 『삼천리』 12권 8호, 1940, 101쪽.)이라는 연술의 맥락을 참조할 때, 북방의 정서와 언어가 경성이라는 준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변부로서의 자의식을 표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방은 내면화 된 식민지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학 양식에서도 상대적 흠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복합적인 의미소라 할 수 있다.

25) 곽효환, 『한국 근대시에 투영된 만주 고찰』,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 138쪽.

26) 이근화, 『현대시에 나타난 ‘북방’과 조선적 서정성의 확립』, 『어문논집』 62, 민족어문학회, 2010, 299쪽.

내 마음은/ 浦口를 일흔 쪽배 처럼/ 섬도 없는 바다로 아득이 흘러만
갈때……

탕!/ 누가 또 密輸를 하느라 江을 넘나보다.

이윽고/ 별들이 푸른 鄉愁를 물고 날러와 박이는내 마음의 寢帳!

해태를 태우는 착한 님이 / 외줄 푸른煙氣에 실려/ 술 술 풀리어 갈
때

간 간 들려 오는/ 이웃집 病알른 아가의 우름소리는 / 匕首 보다도 차
갑게/ 내 心臟을 찢러 주는구나.

轉輾 反側!/ 아아 한 밤이 길기도 하다.

(鴨江旅舍에서)²⁷⁾

김해강은 평북 중강진에 살던 김람인과 서신을 통해 교우하고 있었는
데, 그와 만나 한 달여간 중강진과 임강(臨江) 일대를 돌며 북방에 대한
감각을 습득하게 된다.²⁸⁾ “성옛발 돈는 琉璃廠에/ 하염없이 서리는 鄉
愁!”(『異域의 밤』), “朔北의 하늘!/ 아아 한자락 하늘도 만져볼수 없는
내 마음이어”(『國境에서』), “異域에서 또 一年 —/ 마음의 故鄉이 그리

27) 김해강, 『客愁』, 『동아일보』, 1940, 『전집』, 437-438쪽.

28) 회고에 따르면 김해강은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면서, 김람인과
꾸리던 잡지 『시건설』을 자진 중단하고 방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김람인을
만나기 위해 금강산과 평양, 평북 강계를 거쳐 중강진에 당도했다고 기록한다.
“우리는 압록강 맞은 편에 당시 인구 10만 정도의 임강을 향해 가차에 몸을 실
었다. 압록강을 건너 韓·滿 국경에 도착하였다. 추위는 중강진보다도 더하여
입김마저 얼어붙는 듯하였다. 그러나 嵐人은 이런 추위는 보통이라고 들려주었
고, 대기하고 있던 중국의 호마차에 몸을 실은 우리는 살얼음을 딛는 듯 임강으
로 달려나갔다. 내 생전 처음 대하는 추위 속에 중강진과 임강을 나다니면서 한
달 동안이나 묵게 되었다.” 김해강, 『나의 文學 60年』, 『표현』 11, 1986, 『전집』,
784-786쪽.

위”(『마음의故郷』), “힌 江/ 끝 없이 퍼지는 地坪—” “힌 날개에 파묻힌 北方”(『胡馬車』)을 비롯해 낯선 곳에서 외지인으로서의 정서와 향수가 증폭된다. 화자는 압록강 부근 여관에서 밤을 묵는데, 충소리를 듣고 ‘누가 또 밀수를 하느라 강을 넘나보다’라고 추측할 만큼 밀수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²⁹⁾ 식민정책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빈곤이 심화되면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밀수가 행해졌고, 특히 통제가 소홀하고 월경하기 용이한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1928년~1932년에 걸친 밀수 통계에서 두만강 연안은 6배, 압록강 연안이 7배 증가로 나타나 화전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한편,³⁰⁾ 단속 과정에서 밀수업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한 데서 드러나듯³¹⁾ 밀수를 둘러싼 조선 빈민들의 비극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피식민자의 입장을 취하는데, 밀수를 단속하는 상황—화자의 ‘푸른 향수’—(정황상 단속에 희생된) ‘착한 녀’—‘푸른 연기’가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거처할 곳 없는 존재의 처지와 정서를 겹쳐놓는다. 즉 고향을 떠난 화자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깃든 방은 참혹한 국경지대로 확장되고, 병을 앓는 이웃집 아기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이곳의 척박하고 부조리한 현장성을 환기한다.

29) “공황기 식민지 자본주의의 저임금구조와 개발수탈체계 속에서 극심한 실업률과 최저생활을 강요받은 하층 조선인들은 생계를 위해 밀수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 민중들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취약성으로 인한 실업, 저임금, 농촌 피폐로 기존의 물물교환 수준의 밀수에서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에 가담했고, 밀수출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조선인들이 급증했다.” 김태현, 『신의주·안동·간 밀무역 단속 전개과정과 조선총독부의 대응(1928~1932)』,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2018, 334쪽.

30) 「深刻한 生活難으로 密輸犯逐年激增 五年前보다 六倍増加: 密輸入의 目的은 主食物燕麥買入 豆滿江岸은 六倍鴨綠江은 七倍 犯罪激增의 比率」, 『조선중앙일보』, 1933.11.4.

31) 「又復鴨綠江上에서 密輸者溺死騷動: 滿洲國稅關監視船의 急迫로 頻頻한 人命의 犧牲」, 『조선중앙일보』, 1935.7.14.; 「鴨綠江上慘劇: 密輸船二隻이 顛覆 廿三名이 水中孤魂 安東縣稅關史의 襲撃으로 十五名은 屍體로 發見」, 『매일신보』, 1936.8.6.

국경은 국가 경계의 내부와 외부로 가로지르는 동시에 두 영역이 교접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제도양식이 충돌하고 재생산되는 중층적인 곳이다. 이러한 공간적 조건은 근대화의 심연과 균열을 사유하는 대상이자 정체성 문제를 동반한다. 문인들은 이곳에서 조선과의 인접성을 경험하는 동시에 생경한 감각들이 배치된 공간으로 인식하는데, “이 國境線은 한낱 空處이기는 너무나 만흔 눈물과 피에 영크러 잇는 무서운 現實인 것”³²⁾이라거나, “나라를 쫓긴 망명자 - 탈주자 - 파산자 - 백계노인의 영양(令嬢)들 - 실업군 - 그리고 ‘комму니스트’ 최후로 밀정...평범의 수평선상에 돌기한” “모두 불온한 인종이 난거하는 특수 지대”³³⁾, “原始的인 國境”이자 두만강에는 “武裝을 버서놀 날이 업는 驚史들”³⁴⁾이 혼재하며 식민권력의 구체적 실상과 민족적 애환을 환기하는 곳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방이라는 바깥과 경계로서의 국경 의식은 화자로 하여금 식민 현실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낸다.

이 시기 북방 - 만주 기행이 이민과 개척의 현장을 특정 미디어의 텍스트로서 재현하면서 일제의 제국주의적 통치가 투영된 ‘육망의 장소지’³⁵⁾라는 점에서, 김해강에게 북방은 그러한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파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북방이라는 바깥은 지리적 최전방에서 식민지인의 굴절된 내면을 감각적으로 환기하며 시대정신을 타전하는 공간인 것이다. 식민지적 폭력의 생생한 현장감을 포착함으로써 제국의 환상을 폭로한 바, 훼손된 고향의 참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더불어 민족적 공간의 재건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 주체적 저항이다.

32) 김기림, 「국경정조」, 『삼천리』 8, 1930.9.1., 45쪽.

33) 김기림, 「간도기행」, 『조선일보』, 1930.6.13-26.

34) 한설야, 「북국기행」, 『조선일보』, 1933.11.26-12.3.

35) 곽은희, 「프로파간다화 된 만주 표상과 육망의 정치학」, 『만주연구』 16, 만주학회, 2013, 180쪽.

4. 결론

김해강은 식민권력의 모순과 폭력성으로 인해 부패해가는 식민지 현실을 새로운 감각으로 포착했다. 이로부터 추출된 공간은 제국의 은폐된 균열을 폭로하며 식민지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단의 불철저함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그에게 새 문학은 강요된 근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주체적인 생활을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김해강의 문제의식과 비평적 태도를 공간 표상을 통해 살펴본 바, 근대도시—고향—북방을 근대적 감각으로 조직하여 근대인의 정서와 생활상을 탐구하는 시대정신으로 의미화 했다. 즉 김해강에게 공간 문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서, 근대의 균열과 폭력성을 기민하게 포착하여 문제의식을 확보하고 새 현실인식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평적 태도에 잇닿아있다. 근대도시, 고향, 북방이라는 공간 표상과 이를 추출하는 근대적 감각은 시대의 변화와 본질을 관철하는 김해강의 문학적 사유이자 시적 윤리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근대 도시의 메커니즘은 기존 경험양식을 파괴하며 화려한 단면을 드러내지만, 어디까지나 식민화를 위한 기지로서 기능할 뿐 피식민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감각들을 혼합하거나 병치하며 도시 공간의 불연속성과 기형적 면모를 전시하는 한편, 이러한 공간적 특질을 통해 파편화된 내면을 환기하는 파국의 감각을 보여준다. 도시의 근대적 재편은 존재를 타자화 하면서 소속감을 박탈하고 배제하는 식민권력의 현장인 것이다. 잡종적이고 중층적인 질서로 구획된 도시에서 느낀 권태와 환멸은 필연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연계되는데, 원형적 고향의 재건과 그 불가능성이라는 양가적인 공간 양상으로 구현된다. 도시의 대척점으로서 시원의 기억이 투영된 고향을 복원함으로써 내적 분열과 상실감을 통합하고자 하지만,

이미 훼손된 고향과 되돌릴 수 없음을 절감하고 주변인이자 부랑자로 떠돌을 심화하게 된다. 어디에도 거처할 수 없다는 절망적 자각은 북방이라는 바깥을 지향하며 새로운 현실인식과 정서를 심화한다. 국토의 외지이자 변방이면서 이질적인 문화가 혼재하는 북방은 식민지 현실의 실상과 민족정서를 환기하며 고유한 공간적 정체성을 띤다.

김해강에게 시 쓰기는 곧 근대와 식민의 은밀한 합병에 균열을 가하는 문학적 실천이었다. 물론 그가 친일시를 썼다는 점은 자신이 추구한 시 정신에 배척되는 결함임을 외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³⁶⁾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 주목한 공간적 특질과 감각의 근대성은 피식민자의 굴절된 내면과 식민지 현실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문학적 대응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혼란한 정세와 문학적 모색 속에서 구할 새로운 문학은 근대의 메커니즘을 교란하는 감각을 통해 시대정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김해강의 초기 시 세계에 포진된 공간은 새 현실인식과 감각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서 시대의 정서를 관철한 주체적 역량을 보여준다.

36) 김해강의 친일시 규정을 둘러싸고 상이한 논의들이 제출되었는데, 최명표에 따르면 「돌아오지안는아홉將士」(1942), 「濠洲여」(1942), 「印度民衆에게」(1942), 「아름다운 太陽」(1942)이 친일시로 분류된다.(최명표, 「김해강 시의 텍스트 검토」, 『전집』, 857-858쪽 참고.)

참고문헌

- 곽은희, 「프로파간다화 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만주연구』 16, 만주학회, 2013, 171-196쪽.
- 곽효환, 「한국 근대시에 투영된 만주 고찰」,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 135-159쪽.
- 김기림, 「간도기행」, 『조선일보』, 1930.6.13.-26.
- _____, 「국경정조」, 『삼천리』 8, 1930.9.1.
- _____, 「관북, 만주 출신 작가의 ‘향토문화’를 말하는 좌담회」, 『삼천리』 12권 8호, 1940.
- 김기진, 「조선문학의 현단계」, 『신동아』 39, 1935.
- 김백영,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 『사회와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77-113쪽.
- 김태현, 「‘신의주·안동’간 밀무역 단속 전개과정과 조선총독부의 대응(1928~1932)」,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2018, 319-356쪽.
- 김해강, 『김해강 시전집』, 국학자료원, 2015.
- 나민애, 「1930년대 후반의 최북단 동인지 『시건설』 연구 : 신진 시인들의 기획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0,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97-122쪽.
- 백 철, 「1933년도 조선문단의 전망」, 『동광』 40, 1933.
- 전정구, 「김해강의 초기시 연구 : 해방 이전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223-249쪽.
- 이근화, 「현대시에 나타난 ‘북방’과 조선적 서정성의 확립」, 『어문논집』 62, 민족어문학회, 2010, 279-303쪽.
- 이용악, 「관북, 만주 출신 작가의 ‘향토문화’를 말하는 좌담회」, 『삼천리』 12권 8호, 1940.

이운룡, 「도시공간과 김해강의 저항시」, 『한남어문학』 15, 한남어문학회, 1989, 71-92쪽.

이해문, 「중견시인론」, 『시인춘추』, 1938.1.

임 화,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 조선의 시문학」, 『조선중앙일보』, 1934, 『임화문학예술전집』, 소명출판, 2009, 329-366쪽.

최명표, 「김해강의 도시에 함의된 공간 표지의 식민지성」, 『현대문학 이론연구』 53, 2003, 319-340쪽.

_____, 「김해강 시의 텍스트 검토」, 『김해강 전집』, 국학자료원, 2015, 837-863쪽.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379-402쪽.

한설야, 「북국기행」, 『조선일보』, 1933.11.26.-12.3.

「深刻한 生活難으로 密輸犯逐年激増 五年前보다 六倍増加 : 密輸入의 目的은 主食物燕麥買入 豆滿江岸은 六倍鴨綠江은 七倍 犯罪激増의 比率」, 『조선중앙일보』, 1933.11.4.

「又復鴨綠江上에서 密輸者溺死騷動 : 滿洲國稅關監視船의 急迫로 頻頻한 人命의 犧牲」, 『조선중앙일보』, 1935.7.14.

「鴨綠江上慘劇 : 密輸船二隻이 顛覆 廿三名이 水中孤魂 安東縣稅關史의 襲撃으로 十五名은 屍體로 發見」, 『매일신보』, 1936.8.6.

앤소니 킹, 이무용 역, 『도시문화와 세계체제-문화, 공간, 역사로 읽는 세계도시체제』, 시각과언어, 1999.

<Abstract>

The Spatial Representation and Modern Senses in the Poems of Kim Hae-gang during the Colonial Period

Lee, Ji-Young*

This article aims at extracting the poetic senses corresponding to the colonial realities through the spatial representation in the early poems of Kim Hae-gang. Kim Hae-gang, under the diagnosis requiring new senses and literature to go through the crisis of the era, spatializes the insides refracted by the colonial power with modern senses. The mechanism of dramatically changing cities included the paradoxes and anomalies of the modernity transplanted beyond the splendid civilization. The fragmented things and phenomena are geometrically arranged and reorganized into synesthetic spaces, and they could be the senses of catastrophes showing the colonial cities with malaises and mirths intensively. As distorted modernization is reflected to hometown, giving other senses of loss and deprivation, it shows the duality of homesickness to pursue hometown as the space of idol and ideal. By intending national identity and primitive order to seal the modern cracks, hometown, the damaged cradle cannot be impossible to retrieve and the result of self-sense not reside in anywhere. The sense of leaving hometown is connected to north, amplifying loneliness and homesickness as an

* Kyung Hee University.

outsider, captures the reality of national tragedy, and reveals violence of the colonial power. The outside of north, together with the sense of boundaries, is the space where discloses the fantasies and cracks of the empire and awakens the inside which is refracted, through de-centralization.

Like thi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modern cities-hometown-north show sharply the perspectives of mutual complication of modernity and colonialization and critical attitudes to extract feelings and spirits of the era which were suitable to them. It could be literature practice expanding the consciousness of issues and pursuing subjective life through spatial organization of new senses.

Key Words: Modern City, Hometown, North, Critical Sense, Colonial Sense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0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6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18일